

中연휴 9일까지 연장... 물량 차질에 CJ·농심 등 '발 동동'

중국 진출 식품업계 공장가동 중단
공장 가동 中정부 방침에 따라야

태스크포스 꾸려 상황 예의주시
오리온, 매출비중 절반이 中 시장
유통점 영업시간 단축 타격 불가피



인적 끊긴 중국 우한 시내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진출해 있는 우리 식품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산 일로에 놓인 중국이 춘제 연휴를 연장해 공장 정상 가동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비롯한 중국 대부분 지역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제 연휴를 9일까지로 연장했다. 기업들은 당초 춘제 기간인 지난달 30일까지만 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리온, CJ제일제당 등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 기업들도 공장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오리온

은 중국 내 공장 6곳, CJ제일제당은 20여 곳(바이오·사료 포함), 농심은 4곳, 대상은 2곳을 운영하고 있다.

CJ그룹은 지주사내태스크포스(TF)차원의 '위기관리 위원회'를 마련해 실시간

으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중국 정부에 협조하면서 무리한 공장 재가동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10곳에 달하는 바이오와 사료 공장은 가동 중이나, 식품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다. CJ제일제당은 9일 이후 사태를 보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리온의 경우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에 달한다. 현재 약한 달분의 재고 물량은 확보된 것으로 전해져 코로나 이슈가 장기화하지 않는다면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다만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실적에는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차재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수요 측면에서 위축되는 모습은 없지만 질병 확산이 지속할 경우 2월부터는 생산·물류 차질과 유통점 영업시간 단축에 따라 오리온의 매출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농심은 중국 선양, 상하이, 칭다오, 연변 등 4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개 공장(선양·상하이·칭다오)은 주요 생산품(라면)이 생활 필수품목으로 분류돼 3일부터 가동이 재개됐다. 그러나 백산수를 생산하는 연변 공장은 10일부터 재가동된다.

농심 관계자는 "중국은 행정구역별로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연변 공장은 지린성 지침에 따라 9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고 있어 기업들도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공장 가동도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국 방침에 따라야 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생산뿐만 아니라 물류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져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코로나가 바꾼 소비패턴

가방엔 손 소독제... 반려동물 마스크도 불티

반려동물 마스크 판매 4829% 급등
손세정 중요해지자 '전해수기' 인기
불안감에 휴대 위생용품 구매 늘어
스프레이 소독제 판매량 50배 증가



반려동물 마스크

/티몬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반려동물을 위한 위생용품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에 따르면 최근(1월 27일~2월 2일) 마스크와 손 세정제 판매량은 직전주 대비 각각 1114%, 1409% 증가했다.

우한 폐렴 및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인 손 씻기가 기본 권고사항으로 안내되면서 위생 가전인 전해수기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을 빠르게 전기분해해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상태의 물로 변화시키는 제품이다. 전해수는 살균, 탈취, 세척, 잔류 농약 제거 등 사용이 필요한 곳에 간편하게 직접 분사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옥션 판매량을 살펴보면, 전해수기는 직전주 대비 785% 판매량이 증가했

으며, 전년 동기 대비 5700% 늘어났다. 실외 배변하는 반려동물의 위생 상태를 염려하는 이들이 늘면서 반려견 마스크 판매량도 늘었다. G마켓에 따르면, 같은 기간 반려동물 마스크는 전년 동기 대비 4829% 신장률을 보였다. 반려동물 마스크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미세먼지와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또는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이종간 감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국내 수의사들이 입을 모으지만, 불안한 소비자들 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꼼꼼히 자주 씻는 것이 감염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면서,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고 깔끔하게 소독해주는 휴대용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본적인 손 소독제뿐만 아니라, 손에 닿는 각종 물건을 살균해주는 소독 스프레이, 티슈까지 주목을 받는 모양새로, 일부 인기 제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50배 이상 상승했을 정도다.

친환경 위생용품 브랜드 '클린앤블락'의 스프레이형 휴대용 천연 소독제 '클린톡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을 기점으로 판매량이 이전 대비 50배 이상 늘었다.

내용물을 뿌려주는 것만으로 휴대전

화, 사무용품, 화장품, 손잡이 등 일상에서 손에 닿는 모든 물건을 깔끔히 소독해주는 제품이라는 것이 업체의 설명. 100% 식용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져 인체에 무해하며, 알코올 냄새와 피부 자극이 없이 세균을 없애줄 수 있다. 항균 효과는 24시간 지속된다. 또한, 미니 핸드백이나 바지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는 포켓 사이즈로 휴대성이 높아 언제 어디서든 오염된 물건을 수시로 소독할 수 있다.

애경산업의 위생 전문 브랜드 랩신이 출시한 손 소독제 '랩신 V3 새나타이저 젤'의 하루 평균 주문량은 우한 폐렴 공포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설 연휴 이후 이전 대비 47배 급증했다. '랩신 V3 손소독 티슈' 주문량도 연휴 이전 대비 40배 넘게 늘었다. 각종 질병이나 감염 원인이 되는 유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손을 청결하게 해주는 제품들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등 유해 세균 6종을 99.9% 제거해준다. 두 제품 모두 휴대하기 쉬운 소용량이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합성 에탄올 대신 곡물 발효 에탄올을 활용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사용 후 건조해질 수 있는 손을 위해 알로에베라,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의 보습 성분을 추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정부, 10억 긴급 투입해 코로나 치료제 개발나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연구개발(R&D)에 올해 약 1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제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처럼 예기치 못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 R&D 사업은 과제 기획부터 수행까지 1~2년 정도가 걸리지만, 긴급대응 사업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가 단축돼 과제가 정해지면 수주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올해 긴급대응 사업의 예산은 50억원이며, 이 중 10억원을 신종 코로나 연구에 지원한다.

정부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신속진단제(Rapid Kit) 개발 ▲ 인공지능 기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재창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해도 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 역학 정보 및 자원 수집·제공 등 네 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과제당 2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한다.

'신속진단제 개발' 과제에서는 검체 전처리 과정과 진단 시약 개발을 수행한다. '치료제 재창출' 과제에서는 현재 치료제로 이용되는 약물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효과가 있는 약물을 찾는다.

'바이러스 특성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원성, 감염력, 면역력 등 생물학적 정보를 분석해 방역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발생지 역학 정보 및 자원 수집·제공 연구' 과제에서는 국내의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생률과 분포율을 분석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연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이달 내 연구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외식 대신 집밥... 대용량 식품 판매 늘어

라면·통조림·생수 등도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대형마트에서 대용량 식품 판매가 늘고 있다. 외식 대신 집밥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

까지 매출을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기간(2019년 2월 8일~14일)과 비교한 결과, 대용량 식품의 판매가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20kg 쌀 판매는 동 기간 15.3% 늘었다. 20kg 쌀은 1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그동안 매출이 계속 하락했던 품목이다. 계란도 30개입의 매출이 76.2% 증

가했고, 감귤도 3kg 이상이 16% 늘었다. 대용량 식품의 판매가 늘면서 같은 기간 객단가도 6.4% 증가했다.

장기간 두고 먹을 수 있는 라면(29.2%), 참치통조림(24.3%), 고품 카레(163.2%), 즉석 카레(22%), 생수(25.4%)에도 소비자들의 구매가 집중됐다. 외식 대신 집밥을 먹는 사람이 늘면서 고기류 구매도 이어졌다. 삼겹살(20%)과 한우(17.7%) 매출도 늘었고 스테이크용 고기인 등심과 채끝 매출은

26% 증가했다.

고기 요리에 곁들이는 표고버섯(20%), 양배추(91.7%), 대파(78.9%)는 물론 김치(30.5%)와 반찬·젓갈류(17.6%)까지 매출 상승세가 이어졌다.

요리에 사용하는 소스류, 식후 디저트, 주류와 안주류도 구매가 늘었다. 셀러드용 발사믹 소스는 23.7%, 고추장과 된장은 15% 매출이 늘었다. 체리는 16.7%, 블루베리는 55.9%, 수입 망고는 130% 더 잘 팔렸다.

/신원선 기자